

남원시 공설자연장지 선진 장례문화 호응

3580위 안치 규모 총 사업비 12억여원 들여 친환경적 조성 보안비용 저렴·관리 편리 인근 승화원 지역화장률 70% 급증

남원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설자연장지가 선진 장례문화를 이끌며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2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국비 6억원과 도비 1억3000만원, 시비 5억3000만원 등 총 사업비 12억6000만원을 투입해 남원시 승화원 인접 부지에 친환경적인 공설자연장지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시가 조성한 공설자연장지는 배수가 잘 되는 지형인 광치동 산233-2 일원에 총면적 1만㎡로 자연장 3580위(잔디장, 수목장, 화단장)를 안치할 수 있고 주차장과 휴게 쉼터, 유택동산 등 현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11월 현재 38위(잔디장 14위 수목장 5위, 화단장 19위)가 안치돼 있다.

특히 자연장지는 묘지에 대한 국토 잠식 해소와 집단 묘지 시설에 대한 혐오 정서 및 기존 장례문화가 갖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묘지 조성으로 인한 자연 훼손을 방지하는 등 장례문화 개선에 성과를 내고 있다.

시가 운영하는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또는 화초, 잔디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 지내는 친자연적 장례방법으로 자연을 보존하고 매장과 봉안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관리가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연장지 사용기간은 40년이며 1기당 사용료는 50만원이고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또는 지역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은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또 화장시설인 승화원을 1986년 개원해 화장로 3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연간 1800건 이상 화장하고 있으며 지역 화장률은 70.1%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또 최대 1만1504기를 봉안할 수 있는 남원시 승화당에는 11월 현재 5521기가 안치 중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자연장 안치 선호율이 증가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남원



남원시 승화원 인근 부지에 친환경적으로 조성한 공설자연장지.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대규모 자연장지를 만들게 됐다"며 "최대한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한 자연장지에 조상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 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국가 중요 어업유산 지정...전남 5개 보유 최다

전남도는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 광양·하동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7개 국가 중요 어업유산 중 전남이 5개를 보유하게 됐다. 국가 중요 어업유산은 해양경관과 어업생태계, 전통어업, 해양문화 등 어촌의 중요한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도입됐다. 3년간 총 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어업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는데 쓰게 된다.

무안·신안의 갯벌낙지 맨손어업은 남성은 '가래살'을 사용하고 여성은 맨손으로 갯벌에 서식하는 낙지를 채취하는 전통 어업이다. 가래살은 일반살보다 작고 끝이 뾰족해 갯벌을 파기 쉬운 모양으로 제작된 낙지잡이 전용살이다. 무안·신안의 갯벌은 영양분이 풍부한 펄갯벌이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유연하고 부드러운 육질의 낙지가 서식한다.

광양·하동의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은 '가래'라고 하는 손틀도구를 이용해 재첩을 채취하는 어업 방식이다. 섬진강은 국내 재첩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재첩 주산지다. 광양시와 경남 하동군이 전통 어업유산 보존·관리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다.

한편, 국가 중요 어업유산은 지난 2015년 제주 해녀어업이 제1호, 보성 뱀배어업이 제2호, 경남 남해 죽방렴어업이 제3호로 지정됐다. 2016년에는 신안 갯벌 전일업이 제4호로, 지난해에는 완도 지주식 김양식어업이 제5호로 지정됐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지난 해 완도 지주식 김양식어업에 이어 올해 2건이 신규 지정돼 전남지역 어업자원 보존 장래를 밝게 하고 있다"며 "전남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무형어업 자산을 추가로 발굴해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고창서 전국 단위 보호지역 공무원 '워크숍' 120여명 갯벌 등 자연생태계 효율적 관리 구축 방안 논의

전국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등이 전북 고창군에 모여 자연생태계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고창군은 지난달 30일 전국의 보호지역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상하면 파머스빌리지(상하농원)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창갯벌과 인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등의 관리와 보존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환경부가 주최하고 국립습지센터와 국립생태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환경부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국립습지센터, 국립생태원 등의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정책과 우수사례 공유, 고창군·장수군의 보호지역 지정 추진사례 발표, 제주·창녕·순천·인제 등의 탐사르스지지도 인증사례 발표 등이 이어졌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정읍시, 귀농인 위한 '체재형 실습농장' 운영

정읍시가 귀농·귀촌인이 임시로 생활하며 농사일을 해보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만든다.

실습농장은 15억원이 투입돼 구룡동 구량마을을 1만㎡ 부지에 조성되며 주택 10개 동과 5000㎡ 규모의 농장으로 구성된다.

귀농과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가족과 함께 내려와 살며 농사를 지어볼 수 있는 시설이다.

주택과 농지를 1년가량 함께 빌려주며

임대료는 월 20만원 안팎으로 매우 저렴하다.

내년까지 공사를 마치고 2020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농촌 생활과 농사일을 해보고서 귀농·귀촌을 결정하도록 해 실제 확률을 높이고, 부담이 큰 주택 구입비 부담도 덜어주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화순군과 화순광업소는 지난 29일 광업소 회의실에서 상생발전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화순광업소 상생발전 '손잡았다'

구충곤 군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협력키로

화순군과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키로 했다.

3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과 화순광업소는 지난달 29일 광업소 회의실에서 구충곤 화순군수, 강순팔 군의회 의장, 대한석탄공사 김진열 감사, 박연규 소장, 김영호 노조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

이날 업무협약은 대한석탄공사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화순광업소 관계자의 현황 설명에 이어 화순군과 광업소 측이 지역경제와 사

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상생발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협의했다.

박연규 화순광업소장은 "석탄공사 창립 이래 화순광업소는 화순군과 함께 지역경제 발전, 고용창출 등 공기업으로서의 가치와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며 "화순군의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화순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던 화순광업소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광업소 직원들의 안정된 고용승계와 복지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익산시 장점마을 비료공장 시설물 철거 중단 주민들 "암 원인 규명 위해 역학조사 끝날 때까지 보존" 반발

주민 20여 명이 각종 암에 걸린 익산시 합라면 장점마을 인근 유기질 비료공장 내 시설물 철거가 주민 반발로 중단됐다.

익산시, 주민, 환경단체,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장점마을환경비상대책민관협의회는 지난 30일 익산시청에서 개최한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북의 한 비료업체는 비료공장을 낙찰 받은 뒤 공장 내부를 하차장으로 쓰기 위해 전날 전격적으로 시설물 철거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암 원인 규명을 위한 환경부 역학조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시설물을 보존해야 한

다"고 반발했다.

민관협의회는 "익산시 요청과 주민 반발에 따라 업체가 시설물 철거를 자진 중단했다"며 "역학조사 만료시한인 12월까지 철거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4일부터 불법 폐기물과 오염물질 등이 있는지 공장 전체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주민이 이달 초 제기한 '공장 지하에 불법 폐기물 370t가량 저장돼 있다'는 의혹도 확인하겠다"며 "불법 폐기물이나 오염물질이 나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마을주민에 따르면 2001년 비료공장이



철거되는 장점마을 비료공장.

들어서 후 주민 80여명 가운데 10여명이 폐암, 간암, 위암 등으로 숨지고 20여명이 투병하고 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주민들은 비료공장이 악취, 폐수, 유해물질을 배출해 암 등을 유발했다고 주장한다.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근린상가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스크린골프장, 레스토랑 등등)
- 감정/시세 - 14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

